

##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지원 지침과 지향점: 지원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정지인<sup>1)\*\*</sup> 조이수현<sup>2)</sup> 국혜조<sup>3)</sup> 안도연<sup>4)</sup> 최현정<sup>5)†</sup>

<sup>1)</sup>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생 <sup>2)</sup>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사무국장  
<sup>3)</sup>한국소매틱심리연구소/ 소장 <sup>4)</sup>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조교수 <sup>5)</sup>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양상을 이해하고, 현장의 피해지원 전략을 파악하며, 지원에서 나아갈 방향을 구성하고자 수행하였다. 이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인권활동가 9명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제 분석 결과, 총 113개 하위주제, 19개 상위주제, 4개 범주를 구성하였다. 네 범주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발생하고 재유포와 몰이해로 반복되는 현재진행형 범죄임'이며 '디지털 성폭력은 보여주는 끝없는 공포로 삶과 관계를 박탈당하는 영혼 살해의 트라우마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략으로서 '페미니즘 관점을 바탕으로 연대하여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과의 균형을 돌보며 결국 사회 변화를 지향해 나갈', 나아갈 방향으로서 '지원자 협력 체계 구축과 생존자 지지의 사회적 토대를 바탕으로 은폐가 아닌 증언과 저항의 삶을 지향함'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규범 확립과 제도적 인식 개선 필요성, 피해자 비난과 사회적 낙인에 저항하는 페미니즘 기반 지지 환경의 구축, 10대 지원에서 쟁점, 다학제 협력 지원의 중요성과 동시에 심리상담의 목표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저항하는 키워드로서 '드러냄'과 '연대'를 제시하면서, 페미니즘 의식 향상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지원, 페미니즘, 포커스 그룹, 주제 분석

\*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이며 연구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재 분석하였음. 또한 연구 보조 업무를 맡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김나경, 김아름, 이아현, 이지수, 한혜빈 학생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 현재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으로 재직 중임.

† 교신저자 : 최현정,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mail: hchoi@g.cbnu.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 11. 19.)”를 뜻한다. 즉,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이미지를 악용하여 성적 착취 내지 성적 학대(p. 43)”를 행하는 성폭력이다(김한균, 2017). 국외에서는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기술-매개 성폭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Gómez-Guadix et al., 2015; Henry & Powell, 2018).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 문제는 그동안 사회의 그늘 속에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실태와 악랄함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 및 안녕감 인식에 역시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2021년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임재우, 2021).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여성가족부, 2019)에 따르면, 피해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대가 15.4%, 20대가 24.2%로 특히 높았고, 2020년 보고(여성가족부, 2020)에서는 피해자 연령대가 10대(24.2%), 20대(21.2%) 순으로 높아 피해 연령대가 점차 10대로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가해자와 관계에서 2019년에는 친밀한 관계(24%)가 1순위였다면, 2020년에는 일시적 관계(24.9%)가 1순위를 기록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 양상이 상당히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적 공간(37.3%)에서 범죄 발생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 이외 스토킹, 직접 성폭력 등 누적 범죄 피해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김지

현과 전종설(2021)은 테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의 이중 피해를 겪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적 관계에서 폭력이 디지털 성폭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피해 유형으로 불법촬영(32.1%), 유포(22.7%), 유포불안(15%), 유포협박(13.8%), 사진합성(5%), 사이버 괴롭힘(4.4%) 순으로 나타났는데(여성가족부, 2020), 유포와 관련된 고통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주요 특성 중 한 가지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국내 보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스트레스 반응으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응답자 중 약 67%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국외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성폭력 관련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 등 정서 문제가 발견되고, 특히 높은 수준의 수치심과 자기 비난이 두드러지게 논의되었고, 사이버 성희롱 피해 여성은 우울, 불안, 자살사고, 물질 남용 비율이 높고, 특히 높은 수준의 자기 비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ripps & Stermac, 2018; Reed et al., 2019; Ruvalcaba & Eaton, 2020). 이처럼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대체로 오프라인 성폭력과 유사한 후유증을 보이거나, 사적 이미지의 불특정 다수 유포 위협과 통제 상실에서 비롯된 특수한 고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우려(윤덕경, 2019)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수한 반응양상을 보여준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움직임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2018년 여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20년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

틈 서비스 및 다방면의 피해자 지원을 강화, 피해지원 서비스 전문화를 목표로 삼았다. 2020년 여성가족부 보고에 따르면 상담, 수사, 법률, 의료지원 등 종합지원이 피해 완화에 기여했다는 사례를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전체 피해지원 현황을 보면 총 170,697건 지원 중 삭제지원(93.0%), 상담지원(6.7%), 수사 법률연계(0.3%), 의료지원연계(0.02%)의 지원 비율(여성가족부, 2020)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중점적인 상황이다. 유포 불안 호소가 높다는 점과 삭제 지원이 우세하다는 점은 디지털 성폭력 지원의 독특한 맥락을 반영한다. 이에 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를 총 10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상담소는 수사, 법률, 의료 연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배치 인력이 적은 등 개선할 점이 보고되었고(진혜민, 2022), 이에 더하여 오정용과 박혜현(2022)은 이러한 지원센터의 예산이 부족한 점을 예로 들면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포 불안이 두드러진 호소인 점과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는 지원 활동의 일순위로 꼽히며 관련된 법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다(김숙희 등, 2018). 이어서 박찬미(2021)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에서 다학제 접근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 전문 심리상담가 양성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실제 앞서 제시한 여성가족부(2020) 지원 통계를 보면 상담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에 주목해 보았을 때, 다각도의 지원 방안 및 심리지원을 활성화하기 위

한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실상 디지털 성폭력 심리지원 분야는 이제 초기 단계이고, 피해 후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는 물론, 지원의 지향점과 전략에 대한 지침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이후 반응을 이해하고, 현장 지원 실태를 토대로 효과적인 지원 방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 지침에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경험이 있는 대표적인 국내 지원자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특정 연구 주제에 관하여 연구자가 인터뷰어가 되어 인터뷰이 집단 내 논의와 특히 상호작용 자료를 수집하는 기법이다(Morgan, 1996).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개별 개인 면담이 제공하는 이상의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Morgan & Krueger, 1993).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욱 깊고 풍부한 관점을 제시하고(Thomas et al., 1995), 특정 이슈에 대한 개인 생각뿐만 아니라 그룹 내의 이질성에 대해서도 조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Rabiec, 2004). 특히 본 연구는 아직 풍부한 논의가 정립되지 않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 지원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페미니즘 관점을 기반으로 하였고 이를 가장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커스 그룹 질적 분석을 선택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참여자에게 ‘전문가’로서 지위를 부여하며 평등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생산하고 지식을 구성하며 동시에 의식 향상이라는 페미니즘 방법론을 실천하는 자료 수집법으로 주목할 수 있다(Montell, 1999). 또한 Montell은 개인 면담의 경우 정해진 답을 내려야 하는 압박감이 있다면, 포커

스 그룹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데 초점이 놓이며 이에 성(性)처럼 정상성 규범이 억압하는 특정 주제를 다룸에서 다양한 관점을 촉진하는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은 최근에야 정립되는 실정이기 에 개인이 개별 면담으로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의 지침과 방향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원 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견해를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방향점을 함께 발굴해 나가는 포커스 그룹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1) 디지털 성범죄 양상과 피해 경험의 현상은 어떠한가? 2) 현장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3)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에서 쟁점은 무엇이고 나아갈 방향은 어 디인가?

##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CBNU-202007-HR-0129).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 여성 인 권 단체, 공익 법인, 심리상담 기관에 연구에 관해 홍보하여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경 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포커 스 그룹 참여자는 총 9명으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위원회에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디 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인권 활 동가 6명, 변호사 1명, 디지털 성폭력 전문 지원 기관(민간, 정부) 소속 활동가 2명이었 다. 참여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연령	지원경력	소속 (직업)	주 지원 활동
A	30대	8년	여성인권단체 (활동가)	성매매 피해지원
B	30대	3년	디지털 성폭력 지원 기관 (활동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전반 지원 (삭제 지원 포함)
C	30대	2년	공익 법무법인 (변호사)	소송지원 및 법률상담
D	40대	5년	여성인권단체 (활동가)	여성폭력 피해지원
E	50대	12년	여성인권단체 (활동가)	성폭력 피해지원
F	40대	8년	여성인권단체 (활동가)	여성폭력 피해지원
G	40대	10년	여성인권단체 (활동가)	여성폭력 피해지원
H	30대	1년	디지털 성폭력 지원 기관 (활동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전반 지원 (삭제 지원 포함)
I	40대	10년	여성인권단체 (활동가)	여성폭력 피해지원

## 절차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내용에 따라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쳤다. 연구자가 구두로 연구 내용, 절차, 연구 질문, 녹음 및 익명 처리한 전사 과정 등 연구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연구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정서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인 면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원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수집한 자료를 폐기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설명 이후 서면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이후 참여자 기본 정보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참여 가능 일정에 따라 배정하여 1차 포커스 그룹에 4명이 참여하였고, 2차 포커스 그룹에 5명이 참여하였다. 두 개 포커스 그룹 모두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녹음 후에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록 분량으로는 1차 그룹이 A4 24페이지, 2차 그룹이 28페이지 분량이었다. 포커스 그룹에서 진행자는 한 명으로 질문을 차례로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연구자 역시 논의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에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각 질문에 따른 참여자 간 논의가 대체로 활발하여 순차로 질문을 제시하거나 간혹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한 번 정도 초대하는 촉진 외에 개입이 필요하지 않았다.

포커스 그룹에서 다음의 질문을 갖추고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 1)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 지원 과정에서 지원자로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3) 피해자와 지원자에게 가

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혹은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4) 디지털 성폭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질문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거나 여러 질문에 대한 논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자료는 녹음함과 동시에 두 명의 연구보조원이 현장에서 기록하고 추후 이를 교차 검토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면담 종료 후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 분석

본 연구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주제 분석은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자료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제나 자료에 담긴 의미를 포착하는 질적 기술 분석(qualitative descriptive analysis)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특히 본 연구는 대화를 거듭하면서 포커스 그룹이라는 맥락 안에서 집단적 의미를 생성해 나간다는 페미니즘 맥락주의 관점에 입각하여(Wilkinson, 2006) 주제 분석을 수행하였고 연구 질문에 대한 풍부한 기술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에 두었다.

Braun과 Clarke(2006)는 여섯 가지 주제 분석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1단계로 연구진 네 명이 녹취 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여 자료를 숙지하였다. 다음 2단계로 질적연구 학기 수업과 워크숍을 수강한 이후 여러 차례 질적연구를 출판 혹은 지도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한 명이 녹취록에서 주요 진술을 추출하여 코딩하였고 이를 하위주제로 요약하였다. 3단계로 주제를

추출한 결과를 포커스 그룹에 동석한 다른 연구원 3명과 검토하여 맥락에 따른 의미 파악이 적절한지 검토 후 수정하였다. 이어서 합의한 하위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원 한 명이 상위주제로 구성하였고, 상위주제를 묶어 범주를 구성하였다. 4단계로, 이를 연구원 3명이 검토한 뒤에 참여자 검토를 받았으며 한 참여자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 후 정서 경험에서 수치심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는 피드백을 받아 다른 다양한 감정 경험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도록 분석 내용을 조정하였다. 5단계로, 여성 폭력 지원 종사자가 모인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분석 내용을 공유하였고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한 반복적인 논의를 통해 자료의 포화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자료 수집을 마쳤으며 모든 연구원이 최종 주제 및 범주를 결정하였다. 마지막 6단계로 분석 결과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피드백을 얻어 최종 범주를 풍부한 기술을 포함하도록 재정리하였다.

연구의 믿음직성(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하여(Lincoln & Guba, 1985), 우선 연구진의 경험을 살펴보자면 대다수 10-15년 이상 페미니즘 단체와 연대하면서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한 경험이 풍부하였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역시 여러 사례 지원하였다. 또한 20년 이상 여성학에 깊은 관심으로 공부하면서 소수자로서 여성 경험의 맥락을 이해하는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신빙성(credibility)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여러 연구원이 자료 수집에서부터 분석 과정에 긴밀히 참여하여 단일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분석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참여자 검토 피드백을 반영하였고 여성 피해지원 분야 종사자 집단과 연구 절차 및 분석 결과에 관하여 여러 차례 소통하고 피드백에 따라 보완하는 절차를 밟았다. 또한 10대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와 심리상담 경험이 있는 심리상담가 2인과 개인심층면담을 수행하여 포커스 그룹의 자료에 대한 연구진의 이해를 정교히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지원에 있어 심리상담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였다(Holland et al., 2021). 본 연구를 위한 성찰성(reflexivity)을 높이고자, 연구진은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사회학, 여성학 문헌을 읽고, 현장에서 쟁점을 알리는 토론회, 기자회견, 뉴스 기사를 적극적으로 찾았으며, 피해 당사자와도 별도로 개인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생생한 이해를 높였다. 연구진의 선이해를 보자면 대다수 정신병리 진단에 익숙한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였으나,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를 읽는데 정신병리학 개념을 배제하였다. 이는 사회구조적 맥락을 포함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관점이 배경이 되었다. 정신병리학 개념을 분석에 도입하게 된다면, 자칫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있다는 위험, 따라서 해결 방안을 개인의 치료에 제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질적연구의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숙고하였다. Sanjari 등(2014)에 따르면,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익명성, 비밀보장, 그리고 사전 동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및 정보에 기반한 사전 서면 동의 절차를 지키는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녹취 전사 자료에서 사적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익명 자료만 남기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물에서 사적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해로움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유념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발견의 기회

와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의 사이에서 갈등을 맞닥뜨릴 수 있음을 주의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 활동가로서 오히려 현 사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발언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이었으며 이러한 투철한 직업정신은 인터뷰 상황에서 상당한 울림을 주었다. 그럼에도, 사전에 연구 중단 및 자료 폐기의 권리를 분명히 알리는 방식으로 참여자 권리를 놓치지 않고자 하였고 인터뷰를 정신건강 전문가 4인이 동참하여 수행하면서 인터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자의 스트레스에 대비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참여자의 활동에 경외와 존경을 느낌과 동시에 디지털 성폭력 지원 성과에 주목하면서도, 이들이 느낀 한계와 고민에 대해 경청하고자 하였다.

## 결 과

총 113개 하위주제, 19개 상위주제, 그리고 4개 범주를 발견하였다. 각 주제 및 범주 구성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네 범주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발생하고 재유포와 몰이해로 반복되는 현재진행형 범죄임’, ‘디지털 성폭력은 보여지는 끝없는 공포로 삶과 관계를 박탈당하는 영혼 살해의 트라우마임’, ‘페미니즘 관점을 바탕으로 연대하여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과의 균형을 돌보며 결국 사회 변화를 지향해 나감’, ‘지원자 협력 체계 구축과 생존자 지지의 사회적 토대를 바탕으로 은폐가 아닌 증언과 저항의 삶을 지향함’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발생하고 재유포와 몰이해로 반복되는 현재진행형 범죄임

첫 번째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발생하고 재유포와 몰이해로 반복되는 현재진행형 범죄임’ 범주는 3개 상위주제로 구성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1)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여 사회규범을 적용받지 못하고 신고, 수사, 재판, 처벌에 장벽이 높은 범죄, (2) 재유포로 인해 알려질수록 피해 입는 현재진행형 범죄, 그리고 (3) 성적 낙인과 사회적 소외를 악용하는 사회문화적 범죄였다.

### 상위주제 1: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여 사회규범을 적용받지 못하고 신고, 수사, 재판, 처벌에 장벽이 높은 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성범죄로서 인정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촬영물 범죄뿐 아니라 정보 사칭 도용, 언어적 모욕과 명예훼손, 일상 사진을 도용하여 성적 낙인을 가하는 행위 등 여러 유형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하여 법적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보였다. 또한 성판매 여성의 경우 빈번히 겪게 되는 불법 촬영과 유포는 성범죄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사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참여자 A). 참여자들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기존 성폭력 개념 체계에 적용받지 않으며, 다른 성폭력 사건과 달리 제도 영역에서 구축된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범죄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기존의 성폭력이라는 개념 체계와 이게 상관이 없고, 피해자도 인터넷에서 되게 호된 사기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시거

나, 경찰에 갔을 때도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걸 성폭력에 준해서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받을 때 이런 절차가 있는 이런 것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G)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 및 체계 부재는 경찰 조사를 비롯한 사법 절차에서 처벌 공백이 생기고 당사자가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즉 성적으로 인격권을 침해받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 자체가 성범죄로 인정받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검찰과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정보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이해받지 못해 신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가 접수된 후에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원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및 중국, 일본을 비롯한 일부 해외 국가로 확산된 피해 영상물의 경우 삭제 협조가 잘되지 않으며 강제집행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벌 공백은 생존자에게 너무나 큰 장벽이자 부당한 경험이었으며, 생존자들은 박탈, 분노, 좌절을 지속해서 경험하였다.

“수사관이 이것을 성폭력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하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가 굉장히 부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당사자에게 왜 명예훼손으로 밖에 될 수 없는지를 설득해야 되는. 본인은 명확히 성폭력으로 인지하는데도 현행법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참여자 B)

## 상위주제 2: 재유포로 인해 알려질수록 피해입는 현재진행형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가진 가장 강력한 특성은 재유포로 인한 현재진행형 범죄라는 점이었다. 즉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영상물 및 개인정보가 한번 유포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여러 사람에 의해 지속해서 유포 및 재유포됨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몇 천 명에게 확산되는 등 일차 피해가 계속되는 진행형 피해를 초래했다.

또한 피해 촬영물의 ‘원본 폐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완벽한 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재유포의 차단 및 예방이 어려워 피해자는 지속적인 유포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끊임없는 유포에 대한 불안 자체가 피해라고 규정하였고, 특히 사건이 많이 알려질수록 피해와 박탈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상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사회권 박탈로 피해는 이어졌다.

“보편적으로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특성이 당사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이긴 합니다. 재유포에 대한 사전 차단이나 예방이 힘들다는 지점, 계속 확대될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 피해가 공공연히 전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들이 문제고, 특히 사건이 알려질수록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 특히 신상정보가 같이 유포된 피해 사례의 경우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권 박탈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참여자 B)

특히, 유포 불안이 있는 피해자에게 삭제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오히려 피해를 가하는 ‘디지털 장의사’에 우려를 표현했다(참여자 C).

### 상위주제 3: 성적 낙인과 사회적 소외를 악용하는 사회문화적 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범죄임이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많은 가해가 극도로 지능화되는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없는 피해자 특징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가 유포되는 두려움, 사회적 낙인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 때문에 결국 추가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지적하였다.

참여자 C: 저는 다른 사건으로 만나는 의뢰인과는 다르게, 내담자와 얘기할 때 ‘부유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중력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느끼냐면, 이 세상하고 접점이 없는 것 같은 태도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런 온라인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익숙할 것 같은데, (...)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 부유하고 있는 상태 말고 중력을 가지고 좀 뭔가 그런 접점이 있는 그런 세팅을 하는(게 필요해요).

참여자 A: 그라운드 같은 게 (필요한) 거네요.

참여자 B: ‘부유한다’는 표현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온라인 환경에 극도로 지

능화되고 뭔가 그렇게 발전된 모양새의 폭력을 겪는데, 실제 본인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떨어지거나 경험적인 게 되게 부족하다는 사례들로 이해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중년에게도 발생하지만, 비교적 젊은 10-30대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뭔가 점점 더 보다 사회적 경험이나 기반이 완성되지 않은 대상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C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아동 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 특징을 인지는 하면서도, 사회적 배제에서 비롯된 소외감, 외로움으로 인해 성범죄에 유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장 시기 당연한 성적 호기심을 사회에서 안전하게 해소할 길이 막힌 가운데, 위험한 관계 안에서 유일하게 호기심을 충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루밍 피해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의 갈등이나, 가해자에 대한 연민 및 의존의 문제로 인해 처벌을 거부하기도 하였다(참여자 E).

“그루밍 당해서 사귀는 사이처럼 되어서 원하는 걸 안 해주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심리적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오빠가 되는 거죠. 헤어지자고 할까 봐 찍어보내는 거. 이런 경우에 저희랑 연결되는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라, 보호자예요. 보호자는 애가 타 (...) 그런데, 진술을 안 하려고 해요, 청소년들은. 그리고 청소년들은 유포되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찍힌 사진(얼굴을 가림)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포되어도 상관없다. 그

래서 저희가 보통 예전 (다른 상담)에는 보호자랑 청소년이 같이 왔을 때, 청소년이 원하는 걸 지원했는데,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아니예요).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었는데, 신고되면 그 오빠가 죽어버리겠다, 그 오빠 불쌍하다고. 부모님도 증거를 갖고 오시고 이러면. 그런데 이게 또 청소년과 부모하고 갈등이 심해지면, 청소년은 더 가해자에게 의존이 심해지게 되는데.”(참여자 E)

두 번째 범주: 디지털 성폭력은 보여지는 끝없는 공포로 삶과 관계를 박탈당하는 영혼 살해의 트라우마임

두 번째 ‘디지털 성폭력은 보여지는 끝없는 공포로 삶과 관계를 박탈당하는 영혼 살해의 트라우마임’ 범주는 5개 상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1) 끝없는 유포에 대한 절망과 일상이 무너짐, (2) 보여지는 트라우마를 경험함, (3)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음, (4) 자책감과 낙인, 고립 상태에서 피해가 반복됨, (5) 원래의 삶, 정체성, 관계를 상실하고 박탈당함

#### 상위주제 1: 끝없는 유포에 대한 절망과 일상이 무너짐

생존자들은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강력히 호소하였다. 파트너 간 폭력에서 남자 파트너의 동영상 유포 협박은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을 차지했다(참여자 D). 많은 경우 피해 접수 후에 긴급 지원이 안 되면서 절망감을 느꼈다. 또한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고, 삭제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른 현실로 인해 스스로 사이트 검색에 몰두하고 불법 촬영 피해 위험에 민감해지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경

험을 했다. 더하여 경찰 및 지원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원망을 느끼기도 했다. 많은 생존자가 ‘셀프 채증(유포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수집)’에 몰두하지만, 유포 아이디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보며 소용없음을 느꼈다.

“본인이 해결하려고 집착하시면서 날마다 온갖 사이트를 다 보시고, 또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이상하고... 그래서 계속 사이트를 도신다는 얘기가 있고. 집착이 높아지시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영상물, 어떤 것들도 유포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 ‘저 사람이 나를 찍었어’, ‘소리가 들렸어’,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찍었고, 유포를 하고 있다’고 말할 때도 있더라고요.”(참여자 D)

#### 상위주제 2: 보여지는 트라우마를 경험함

디지털 성폭력 트라우마의 핵심은 보여지는 공포에 있었다. 특히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언론에서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활동도 원치 않는 입장이 많았다. 일부 생존자는 피해 사실을 상기하기 고통스러운 나머지 지원 기관의 연락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얼굴이나 신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일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데 대한 공포 및 불안을 경험했다. 이에 다른 범죄의 생존자들에 비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더 어려워하고, 다른 생존자들과 접촉하는 것마저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특성이 당사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이긴 합니다. 재유포에 대한 사전 차단이나 예방이 힘들다는 지점, 계속 확대될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 피해가 공공연히 전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들이 문제고, 특히 사건이 알려질수록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 특히 신상정보가 같이 유포된 피해 사례의 경우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권 박탈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참여자 B)

### 상위주제 3: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음

생존자들은 디지털 성폭력 이후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연인이나 아는 사람이 유포한 경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아동기 그루밍 피해 생존자는 이후의 피해에 더 취약하고 그 누구에 대한 신뢰도 못 느낀다고 하였다.

“10대 초반에 그루밍해서 (피해 입은 분이) 성인이 되신 거예요. (...)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오셨을 때도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고, 본인 보고도 없고, 가족에 대한 설명도 단편적으로 설명하시고 (...) 특히나 아동기 때 피해가 있을 때 성인기까지 가는 경우 어마어마하게 어렵겠구나.” (참여자 I)

### 상위주제 4: 자책감과 낙인, 고립 상태에서 피해가 반복됨

생존자에게 오히려 자책감은 끈질기게 강력하게 남았다. 생존자들은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찍히는 두려움으로 더 극심한 유포 불안

을 경험했다. 일상 사진 피해자 경우 낙인감이 덜하여 지원 연결이 조금 더 가능해 보이지만, 강한 성적 내용이나 본인이 제작한 영상으로 피해 입은 생존자 경우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단절이 더 크고 자기 비난이 강했다. 참여자 B는 이들에게 피해를 온전히 지지받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죄책감을 깨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그루밍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나타났다. 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으로부터 ‘피해자일 것 같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다.

한편 청소년 생존자의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인식하지만 부모가 실망할까 두려워서, 혹은 성적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냉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루밍에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반대로 성인은 그루밍 피해를 인정받기가 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루밍 피해를 이야기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본인이 그루밍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유포가 된 건인데도, 실제로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깨고 요청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린 거 같아요. 청소년은 보호자가 막 요청을 해서 삭제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되는데, 성인의 경우, 그런 부분이 힘든 거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청소년의 경우, 그런 그루밍으로 피해당한 걸 피해자로 인정하는 경우

가 많은데, 성인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여자 F)

대체로 청소년은 가족에게 영원히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다. 때문에 청소년인 경우 보호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주제였다. 한 참여자는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부모가 청소년 생존자를 대신하여 모든 절차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청소년 혼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G). 이는 보호자가 제공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였다.

“청소년의 경우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크게 두 상황의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부모가 범정대리인이 되어서 자기 딸 대신에 본인이 다 말하는데, 그런데 사실 (부모는)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딸)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 아 더 이상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침묵하고. (...) 아니면 부모에게 완전히 모르게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를 만나러 오는 것도 문제고,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바꾸는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자신의 의지대로 교체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G)

#### 상위주제 5: 원래의 삶, 정체성, 관계를 상실하고 박탈당함

생존자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신상이 특정

되면서 완전히 고립되고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일부는 자살 위기를 경험했다. 특히 지인에게 알려졌을 때는 원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느꼈다(참여자 C). 생존자들은 주변과 연결을 끊거나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며 고립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으며, 결국 자신을 지지해주는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망으로부터 사라졌다. 연결되는 게 곧 피해였다(참여자 G).

“모든 연결을 끊는 방식이 대처이듯이 단계를 설정해서 어디부터 사라져야 되지(를 정해요.) 어디 친구까지는 날 알아볼 수 있으니 얼굴을 바꿔야겠다는지 아니면 모든 계정을 탈퇴하고 핸드폰을 3번이나 바꿔서.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끊으면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군까지도 삭제되는 거잖아요.” (참여자 G)

세 번째 범주: 페미니즘 관점을 바탕으로 연대하여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과의 균형을 돌보며 결국 사회 변화를 지향해 나감

세 번째 범주는 다음 상위주제로 구성됐다. (1) 정보 제공과 제도적 지원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연결을 유지함, (2) 일상 삶을 회복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함, (3) 관계적 지지와 연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함, (4) 낙인과 피해자 비난의 공포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페미니즘 관점으로 소통하며 함께 버팀, (5) 사회적 인정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알림, (6)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지지적 관계 구축을 도움.

**상위주제 1: 정보 제공과 제도적 지원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연결을 유지함**

디지털 성범죄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에서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생존자가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의 전문 지원, 경찰 신고 관련 정보, 주민번호 변경, 삭제 지원 등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존자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법을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생존자가 잘못된 정보를 보고 동기를 잃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디지털 성폭력 지원 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신고할 때 경찰이 증거를 먼저 채집할 수 있게 하거나 피해 촬영물의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가해자가 무고죄로 신고한다는 협박을 하더라도 생존자는 안전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법적 정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생존자에게 디지털 환경의 위험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참여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는 과정은 곧 생존자 주변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피해를 실제적으로 하나씩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말하였다. 심지어 지원 기관과 연결을 피하던 생존자조차 절차와 과정을 공유하는 과정을 중요시했다(참여자 A). 현재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근거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자의 노력을 설명할 때 생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참여자 D).

참여자들은 생존자를 지원할 때 문제 해결 중심 접근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처와 없는

대처를 구분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참여자 E).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설정하고 해내는 경험의 중요성에도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개명을 통해서도 하나의 답을 넘었다는 힘을 준 적이 있고, 여러 지원을 시도하여 생존자가 삶을 계속 살아갈 원동력을 얻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최근에 놀랐던 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랑 개명 신청이 완료되어가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먼저 됐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작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 되는 것들을 계속 시도할 때 원동력을 얻는 건가 하는 느낌.” (참여자 C)

**상위주제 2: 일상 삶을 회복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함**

생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자가 일상을 나누고, 챙기는 방식의 지원이 중요했다(참여자 D). 계속되는 피해와 장기전에 살아갈 역량을 만드는 지원이 필요하며, 무력감 및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발휘하여 일상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참여자 I). 특히 생존자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부터 긴급한 심리적 위기 상황에 이르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심리지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참여자 G). 피해는 지속되기 때문에 생존자가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수치심 및 죄

책감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참여자 B).

“피해자들이 상담센터가 문을 닫은 6시부터 새벽 시간에 어떤 신체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다든지, 내 가까운 사람이 영상 확인했는데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너냐고 물어봤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다든지, (...) 이런 식의 어떤 꿀팁 (이 필요한)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것이 (...) 초기의 도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여자 G)

### 상위주제 3: 관계적 지지와 연결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함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는 다른 성폭력 생존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서로 간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는 생존자 개별 개인 특징이라기보다, 사회조건과 관련돼 있다고 논의하였다. 아직 지원체계가 연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참여자 G).

이에 참여자들은 지원 전략으로 생존자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연결망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가 가해자의 유죄판결보다 안전망을 더 원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주변의 관계망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실제 생존자가 다른 생존자와 만나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례를 나누었다. 같은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해준 말은 받아들일 수

있었고, 연대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동맹 속에서 싸우면서 자긍심과 자원을 얻었다.

“피해자분 중에 (...) 길거리 시위에 나갔는데 본인이 거기서 다른 피해자분이 나 여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나 이런데 자꾸 가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얘기할 자신은 없지만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지원해 주는 게 단체는 당연하지만, 나도 모르는 (같은 피해자가) 이렇게 한다는 게 좋은 메시지를 주더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관들을 만나서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삭제하고, 좋지만,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관에 가서 이런 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듣고, 본인이 다른 피해자의 치유 경험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 F)

### 상위주제 4: 낙인과 피해자 비난의 공포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페미니즘 관점으로 소통하며 함께 버텨

참여자들은 지원자가 낙인이나 편견으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존자가 상담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생존자를 향한 낙인, 혐오, 차별의 양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지원자는 내담자의 자기 비난과 혐오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낙인의 공포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자기 탓을 하는 생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누구나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이유에서

든지 피해는 피해로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낙인 역시 사회가 만든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생존자가 피해의 죄책감 역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젠더기반 폭력으로 이해하는 페미니즘 관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신이 성매매했든, 돈을 기대했든, 약속을 기대했든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피해는 피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참여자 A)

#### 상위주제 5: 사회적 인정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알림

참여자들은 많은 사람이 여러 활동으로 생존자와 끝까지 함께 하고, 피해를 귀담아듣는 기관과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호소하면 함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생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분이 경찰서 무조건 갔는데 좋은 경찰을 만났어요. ‘되든 안 되든 고민을 해볼게’ 하는 경험이 너무 좋았고 이런 사례가 쌓이면 범죄로 알려질 수 있겠다. 꼭 기소가 되고 처벌이 된다는 거보다 귀담아들어 주고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주고 싶고, 어디에 가서 호소하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길로 간다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다.” (참여자 F)

한 참여자는 한 번이라도 지원을 요청한 생존자는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최선을 움직이고 있으며, 제도 부재에 대해 바꾸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즉 생존자를 지원하는 ‘우리’가 있음을 알릴 때 생존자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참여자 A).

#### 상위주제 6: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지지적 관계 구축을 도움

참여자들은 청소년 생존자의 경우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지지하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루밍 피해 생존자의 경우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도움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의존을 낮추도록 지원해야 했다. 또한 많은 청소년 생존자들은 보호자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참여자 E, H).

“중학생인데.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피해 자체보다 이 사실 자체를 부모님이 알게 되는 걸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그때 저희가 했던 게 아이를 설득해서, 경찰 신고가 선행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보호자 분 중에 누가 더 편하냐, 엄마라고 하면, 네가 얘기하기 어려우면 상담선생님 중에 엄마한테 얘기해서, 내가 직접 통화해주겠다. 한 하루인가 이틀 뒤에 그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아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와주셔야 하고, 아이가 신고를 한건 너무나 똑똑하다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많은 상담 기관에서 제발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큰 공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설득만 하면,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해볼게, 아니면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해보면 아이들이 한번 고민해볼게요, 이 정도까지는 되는 거 같더라고요.” (참여자 H)

물론 부모 또한 자책감과 불안으로 인해 피해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고 부모가 자녀를 문제아로 보는 시선도 생겼다. 따라서 부모의 불안과 자책을 살펴줄 수 있는 부모 상담 역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네 번째 범주: 지원자 협력 체계 구축과 생존자 지지의 사회적 토대를 바탕으로 은폐가 아닌 증언과 저항의 삶을 지향함

해당하는 다섯 가지 상위주제는 (1) 체계적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2) 등대처럼 가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긴급 대응과 온라인 및 방문 지원이 필요함, (3) 전문 지원자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4) 은폐와 존재 훼손에 저항하는 생존자를 지지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갖추어야 함, (5) 증언과 발언을 통해 저항하고 살아남는 삶의 방향을 지향함이었다.

#### 상위주제 1: 체계적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 램이 필요함

현장 활동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생존자가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메뉴얼과 교육 콘텐츠 개발, 생존자를 위한 정기 프로그램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참여자들은 안정적으로 접촉할 방법을 마련하고, 구조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의 대다수가 온라인 활용도는 높아도 온라인 환경 자체에 익숙하지 않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 세계와 접점을 갖춘 지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자 C는 생존자와 더 자주 전화하고 만나자고 제안하여 생존자와 접점을 늘리려 하였다.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필요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이 가장 필요했다. 이러한 모임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특화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생존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될 텐데. 저희도 그렇지만,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너도? 나도!’ 이런 기회들 있잖아요. 되게 필요할 거 같은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이 온라인 세계거나 지원 절차나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나누는 게 덜 한 거 같아요.

선불리 말하기도 그렇고. 이분들은 혼자 지원자랑 만나고, 혼자 병원을 찾아가고.” (참여자 D)

한편, 다양한 지원 영역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심리상담에 연결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다. 특히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담에 대한 권유를 받게 되더라도 이에 응하는 생존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조 모임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잘되지 않았다고 했다. 생존자가 자살 충동을 호소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력할 때, 또는 안전한 자조 모임을 구성할 때 심리상담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C는 사건으로 인해 촉발되는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상위주제 2: 등대처럼 가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긴급 대응과 온라인 및 방문 지원 필요**

참여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징에 적절한 긴급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는 유포 피해 생존자의 자살 또는 자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지원으로서 접수 면접을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 상담자와 자살 서약서를 작성하기,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기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제 신청부터 삭제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시간 단축이

중요하다고 논의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경제적 여력, 이동 능력 등이 없는 경우 방문 상담을 통해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지원 방식’에 대해 제안하였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생존자가 기존의 전화 상담으로부터 느끼기 어려웠던 지원자의 실체 및 연결을 느낄 수 있으며, 지원 기관에 대한 신뢰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참여자 G).

생존자가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시간대에 등대와 같은 의미를 지닌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참여자는 G는 온라인 공간에 지원 등대를 상상했다.

“만약 국가 차원이나 사회 차원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대대적인 자원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밤 시간에 온라인 공간에 등대를 구축하는 방법이 엉뚱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는 좀 더 청소년이나 10대, 20대 디지털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네이티브? 그런 분들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노출되어야 할 것 같고.” (참여자 G)

**상위주제 3: 전문 지원자 협력 체계 구축**

참여자들은 전체 성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비율이 증가하고, 10대나 20대 초반 이른 연령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지원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여러 분야 사람이 연구와 고민을 계속해야 하며, 지원 기관 간 협업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좀 더 이 일에 아픔이든 분노든 아니면 엄청나게 집착해서 이걸 파고 들어가는 (...) 이런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일단은 다 끌어모아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체계 없이 두서없더라도 막 뻗게 도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많고 그러다 보면 피해자들도 더 이야기하려고 들어오고, 치료자도 들어오고, 지원자, 경찰도 들어오고. 되게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할 이야기가 많고, 이야기해 나가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G)

심리상담가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쌓을 필요가 있었다.

“저희 내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발생하고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직접 사례를 해보니까 얼마나 악질적인지 아니까 공감이가는데, 일반 (심리)상담 선생님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발생한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비트코인까지 얽힌 범죄는 들어도 모른 굉장히 공학적인 기술이 나오고 그러니까.” (참여자 H)

개별 지원자 집단 역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특히 페미니즘 인권 활동가와 디지털 성폭력 전문 변호사, 심리상담가와의 협업은 물론, 지원 기관 간 협업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디지털 성폭력 지원자 역시, 자신이 고립되지 않

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했다.

“저희 상담소는 내부에 심리상담센터가 있어서 같이하고 있는데 다행인 게 저희가 사례를 지원하는 활동가와 심리상담사와 소통이 잘되고 어쨌든 연락을 하면 당일에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랑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심리상담자와 심리적인 부분을 같이 하니까, 요즘에는 (그게) 되는 피해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저희랑 라포를 쌓는 과정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어렵기는 해요. (심리)상담 안 하시고 활동가하고만 만나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절하기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활동가가 힘겹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심리상담가와 활동가가 조금 협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F)

#### 상위주제 4: 은폐와 존재 훼손에 저항하는 생존자를 지지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갖추어야 함

참여자들은 유포 및 재유포 삭제지원 규모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한 참여자는 삭제지원 중심의 한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과거 민간에서 삭제지원을 했을 때 상근활동가 전원이 24시간 근무해도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경험에 대해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잦은 재유포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지원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개별 사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긴

급 지원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 회의감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피해 상황의 정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는 모니터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참여자 B).

즉, 유포 피해가 ‘있다’ 혹은 ‘없다’에 쟁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회복 방향이 필요하다고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생존자가 경험하는 유포 불안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불안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동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것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완곡하게 피해자랑 하려고 하는데, 거부감이 큰 것 같아요. (...) 이걸 영원히 없애지지 않고 계속 나와 같이 가는 건데 내가 무너지나 아니냐의 문제일건데, 법률적인 절차로는 그것을 지탱해줄 수 없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모든 분께 얘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참여자 C)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다수 생존자는 유포에 대한 극단적 공포를 느끼게 되지만, 지원자들은 생존자가 이에 대처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음을 지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내면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에 맞서서, 참여자 C는 생존자가 왜 협박에 좌절과 공포를 느끼

는지에 대해 다르게 접근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 참여자 D는 피해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를 구체화하고 협박 및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일부부터 시도해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관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삭제하고 없애고 끊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과 계속 같이 공존할 텐데 이 상황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누군가가 키워드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채증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일상에서 해오던 것들에 집중하고” (참여자 C)

“협박이라는 것은 비밀일 때 강력해진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비밀이었지만, 가해자에게 알려주자. (여성단체)에 상담했더니, 범죄라고 하더라. 그러면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박의 기능이 떨어질 거다. 할 수 있는 것과 하는 것을 얘기해볼 때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 (참여자 D)

참여자들은 생존자에게 피해가 계속됨에도 위협이 되지 않게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재유포의 불안을 없애려는 것만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는 길도 치유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생존자에게 전달하고 생존자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지원자는 피해가 유포되었다고 해서 삶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참여자 A).

#### 상위주제 5: 증언과 발언을 통해 저항하고 살아남는 삶의 방향을 지향함

참여자들은 한 생존자가 법정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증언하면서 피해로 인한 고통이 가라앉는 경험을 했음을 이야기했다. 결국 보여지는 트라우마가 있는 생존자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드러내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하는 셈이었다. 특히 생존자가 발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지원자가 그 스피커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생존자 발언이 담긴 기록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말하였다. 이렇게 생존한 사람은 ‘유포되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대응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참여자 C). 생존자 삶에는 피해가 계속됨에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

“사실 법정에 진짜 다녀오신 피해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법정에 가신 거였거든요. (...) 그래서 본인이 갔다 오셨는데 너무 만족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갔더니 판사가 자신을 너무 신기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말하고 오니까 자기가 이게 가라앉는 걸 경험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기회들을 더 만들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만약 저라면 실제로 모든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를 존중했을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말하고자 할 때의 그 의지를. 준비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 그 역량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 논 의

본 연구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자의 경험을 탐구하여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이해하고, 현 지원 전략을 정리하며 향후 지향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자의 인터뷰를 질적 분석한 결과를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따라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 일선에서 성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사회규범 정립이 안 되어, 피해자에게 신고, 수사, 재판에서 장벽이 높고, 재유포 범죄 반복으로 인한 현재진행형 범죄의 특징이 두드러지며, 특히 성적 낙인과 사회적 소외를 악용하는 사회문화적 범죄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사회규범으로 정립하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성적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존자들은 법적 제도적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낙인을 가하는 이분법적 사회규범 속에서 지속되었고,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을 대

상으로 자행되었다. 김수아와 장다혜(2019)도 마찬가지로 범죄물을 ‘음란물’로 칭하며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는 문화 폭력이 디지털 성폭력에 기반해 있다고 지적하였고, 김지현과 전종설(2021)은 구조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폭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지각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에 따라 그에 맞는 법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덕경(2020)은 심각한 가해나 유포를 행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가 51.8%로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전신 촬영물이나 일상 사진 신체가 성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인정받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판례가 있다고 하며 성폭력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윤덕경, 2020).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혜정(2020)은 영국과 호주의 경우 피해자 상담을 중심으로 사건 해결이 진행되는 반면, 국내 상황은 ‘피의자 검거’를 중심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비판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최근 논의는 수사 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부재에 대하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방안(오정용, 박혜현, 2022),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김지현, 전종설, 2021). IT 기업 또한 인식 변화 주체에서 예외가 아닌데, 법령개정 운동에 따라 국내에서도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삭제 의무가 신설된 바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이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현상을 보면, 피해자는 끝없는 유포로 삶이 무너지는 경험

을 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은 보여지고 드러나는 자체가 트라우마 경험이 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삶을 제한하고 심지어 피해지원조차 어렵게 하였다. 피해자는 아는 사람에게 피해 입거나 그루밍 범죄를 겪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자책감과 고립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반복 피해와 특히 유포와 신상 특정 피해로 인해 이전 삶과 정체성, 관계를 박탈당했다. 이는 마치 존엄과 영혼을 살해당한 경험으로 체험됐다. 이러한 의견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후 반응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지현, 전종설, 2021; Cripps & Stermac, 2018; Gámez-Guadix et al., 2015; Henry & Powell, 2018; Reed et al., 2019; Ruvalcaba & Eaton, 2020).

유포와 신상 특정의 악랄한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삭제지원 및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 중요할 것이다. 국외 예시로 호주는 연방 정부 기관인 인터넷 안전위원회를 통해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경우 소셜 미디어에 삭제 명령을 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국내에도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지닌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김혜진, 2020). 김지현과 전종설(2021)은 삭제지원이 분담될 시 피해자 및 지원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 삭제지원 플랫폼 구축의 시급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사회적 낙인과 자책감은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였다. Randall(2010)은 성폭력에 대항하여 스스로 보호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통념이 피해자 비난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내면화한 피해자가 자기 비난

을 하고, 경찰이나 사법 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강간 신화(rape myth; Burt, 1980)는 오프라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Mckinlay와 Lavis(2020)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니며 피해 이미지의 심각도가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 내 디지털 성폭력에 피해자 비난을 더 하는 현상을 밝혔다.

요컨대, 디지털 성폭력 피해 현상은 사회문화적 억압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연관된 철저한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정체성 상실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사회적 자기를 파괴하는 경험으로 인간에게 이러한 상징적 자기의 파괴는 생명 위협의 생리적 손상과 마찬가지로 치명적 트라우마 경험(Janoff-Bulman, 1992)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존자가 성폭력 경험을 드러냈을 때 긍정적인 사회 반응이 있다면 회복에 대한 통제감과 적응적 사회적 대처를 매개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Ullman & Peter-Hagene, 2014)에 따른다면, 디지털 성폭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곧 고통감 완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지원자의 다양한 지원 경험과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 지원 전략을 살펴보았을 때,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적 지원과 연결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처음에 지원자를 신뢰하지 않던 생존자도 차차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지원자-생존자 간, 그리고 생존자 사이의 관계적 지지와 연결감을

토대로, 생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야 하였다. 이는 결국 중대 사건 후 생존자가 경험하는 연대감이 곧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선행 논의와 일치한다(Hawdon et al., 2012).

또한, 지원자들은 특히 페미니즘 관점과 지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낙인의 공포는 결국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이해하도록 돕고, 사회가 생존자 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강조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내담자 경험을 이해하고 개별 개인의 지원과 사회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상담가 옹호 활동에 관한 논의(김민정, 최한나, 2021)와 일치한다. 또한 Israeli와 Santor(2000)는 페미니즘 인식을 가진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며 그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의식향상, 사회적 역할과 젠더 역할 분석, 재사회화, 그리고 사회 운동을 들며 각 구성요소가 치료 효과에 기여한다고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DiTullio와 Sullivan(2019)은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했을 때 페미니즘에 입각한 내러티브 접근법이 치료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가부장 권력의 언어에서(예: 피해자) 내담자 스스로 구성하는 언어로(예: 생존자, 경험한 사람) 내담자 주도하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창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서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자기감에 손상을 입는 경험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관점에서 생존자가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구조적 이해는 디지털 성폭력 지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는 지원자의 대리 외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예: 권혜수, 김소라, 2006).

10대는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조건 속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온라인 그룹밍 성범죄에서 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서를 이용하고(전수아 등, 2021), 불확실성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취약한 상태의 10대를 의존하게 유도하여 범행을 저지른다(Kloess et al., 2019)는 논의와 같다. 또한 10대의 성을 향한 금기와 적절한 성교육 부재(Elliott, 2010)는 오히려 10대의 성범죄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본 연구가 있어, 10대의 자연스러운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활동을 은폐하는 사회규범이 오히려 10대가 디지털 성범죄와 그룹밍에 노출되는 조건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 특히 10대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임을 알면서도, 아는 만큼 낙인과 자책으로 고립되면서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존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10대가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지적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 초기에 10대의 거부로 보호자를 접촉할 수 없는 경우, 무턱대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10대가 지원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보호자에게 돌봄을 받고 말할 수 있도록 지지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10대 지원에서 보호자 부재 문제를 수사 및 지원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하여, 피해 10대의 보호자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호자는 피치 못할 삶의 조건으로 자녀가 피해입는 상황에서 자책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보호자가 안정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대규모 개괄 연구는 성폭력을 경험한 아동에게 부모의 안정적인 지지가 사건 이후 아동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Elliott & Carnes, 2001).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에서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심리지원 측면에서, 지원자들은 생존자가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연결되기가 몹시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심리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원자들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맞추어, 안전하게 상시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와 연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로는 지원자들은 심리적 위기나 일상 회복을 위한 대처 방법, 수치심 죄책감 등에 대처하는 방법, 감정을 조절하고 본인을 돌보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 상담에서 피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문제 해결 과정을 함께 하는 중요성을 밝힌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박가람, 정남운, 2008). 특히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도 심리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수적이었다.

한편, 지원자가 요구하는 지원 환경을 살펴보면, 광범위한 사회적 자원이 요구되며 페미니즘 입장의 중심축이 필요했다. 마치 ‘등대 처럼’ 언제나 피해자가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생존자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권미경, 2018)에서 생존자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 상담을 담당하는 지원센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피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공조하여 생존자 중심으로 원스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와 궤를 같이

한다. 이렇듯 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반복되고 있으며(김숙희 등, 2018; 김지현, 전중설, 2021), 특히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페미니즘 관점에 입각하여 통합 지원하려면 이와 같은 관점에 기반한 정부 부처의 중앙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지원자들은 삭제 중심 지원에 대해 고민하였다. 지원 노력을 대부분 유포 삭제 및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쏟게 되는데, 인력과 여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이러한 지원이 과연 디지털 성폭력 발생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저항하고 생존자의 삶을 회복하는 방향인가 고민하였다. 드러나는 트라우마라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이 여성의 성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과 낙인에서 비롯되었다는 맥락에서, 오히려 역설로 자신을 드러내고 발언한 생존자가 힘을 얻고 살아나가는 사례를 목격할 수 있었다. 지원자들은 숨기와 지우기보다는 은폐와 존재 훼손에 저항하는 생존자를 지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였다. 즉, 유포 협박에 공포를 느끼는 배경과 맥락을 직시해야 하고, 완전한 피해 촬영물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은 2017년 시작된 ‘미투 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권력형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생존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경험을 고발하며 은폐된 생존자 목소리를 드러내고 서로 연대하였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생존자의 반폭력 사회 활동이 그 자신의 회복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Swanson & Szymanski, 2020)에서도 생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느끼며 대인관계를 가꾸어나갈 수 있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자신의 피해 경험을 스스로 타당화하는 경험이었다.

성폭력 피해는 은폐와 낙인이 아닌 ‘드러냄’과 ‘연대’를 통해서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는 유포가 범죄라는 공고한 법적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본 연구 지원자들 역시 유포 불안을 타당화 하는 동시에, 유포되어도 피해자의 삶이 붕괴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포한 자가 범죄자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지원자 또한 유포와 신상 노출의 긴박한 공포를 겪는 생존자에게 이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드러냄’과 ‘연대’를 키워드로 하는 페미니즘 의식 향상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분석하여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지원 지침과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겠으며, 특히 심리상담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지원 현황에 비추어 ‘드러냄’과 ‘연대’의 키워드 발견은 추후 더 활발한 쟁점 논의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한계로, 첫째,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을 충분히 탐색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본 연구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생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토해 회복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가 절실해 보인다. 둘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는 지원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지원자가 드러낼 수 있는 특수한 지점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의 지원자를 포함하여 더욱 풍부한 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 더하여 심리상담가를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여 디지털 성폭력 심리상담에 관한 풍부한 상호작용의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가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지원의 발전에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11. 19). 전기통신사업법.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에서 검색>.
- 권미경 (201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3), 39-76.
- 권해수, 김소라 (2006).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95-518.
- 김민정, 최한나 (2021).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853-881.
- 김수아, 장다혜 (2019).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89-130.
- 김숙희, 김영미, 김현아, 서승희, 장윤정 (2018).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1), 41-66.
- 김지현, 전종설 (2021). 여성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 데이트 관계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2), 101-122.
- 김한균 (2017).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3), 27-57.
- 김혜정 (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여성과 인권*, 23, 66-83.
- 김혜진 (2020).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8), 85-95.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 11. 19). 디지털 성범죄.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 에서 검색.
- 박가람, 정남운 (2008).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지각한 도움경험(Helpful Experience):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61-182.
- 박찬미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피해지원자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이화젠더법학*, 13(3), 31-63.
- 여성가족부 (2019).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여성가족부.
- 오정용, 박혜현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38(2), 31-58.
- 윤덕경 (2019).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ISSUE PAPER*, 1-8.
- 윤덕경 (2020).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 현황과 개선과제. *KWDI Brief*, 55, 1-10.
- 임재우 (2021. 10. 20). 디지털성범죄 피해 올 상반기 3857건, 전년보다 63%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5831.html>에서 검색.
- 전수아, 권하늬, 정한나, 김수영 (2021).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52(1), 97-138.
- 진혜민 (2022. 08. 27).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 화상답소’ 인력 2명으론 부족하다.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68>에서 검색.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Cripps, J., & Stermac, L. (2018). Cyber-sexual violenc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among women in a Canadian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Criminology*, 12(1), 171-186.
- DiTullio, M. C., & Sullivan, M. M. (2019). A feminist-informed narrative approach: treating clients who have experienced image-based sexual abuse.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31(2-3), 100-113.
- Elliott, S. (2010). Parents' constructions of teen sexuality: Sex panics, contradictory discourses, and social inequality. *Symbolic Interaction*, 33(2), 191-212.
- Elliott, A. N., & Carnes, C. N. (2001). Reactions of nonoffending parents to the sexual abuse of their child: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 Maltreatment*, 6(4), 314-331.
- Gámez-Guadix, M., Almendros, C., Borrajo, E., & Calvete, E. (2015). Prevalence and association of sexting and online sexual victimization among Spanish adults.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2(2), 145-154.
- Hawdon, J., Räsänen, P., Oksanen, A., & Ryan, J. (2012). Social solidarity and wellbeing after critical incidents: Three cases of mass shootings. *Journal of Critical Incident Analysis*, 3(1), 2-25.
- Henry, N., & Powell, A. (2018).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Trauma, Violence, & Abuse*, 19(2), 195-208.
- Holland, K. J., Cipriano, A. E., & Huit, T. Z. (2021). LGBTQ and straight sexual assault survivors' interactions with counseling in a campus counseling center and women's center. *Women & Therapy*, 44(3-4), 337-357.
- Israeli, A. L., & Santor, D. A. (2000). Reviewing effective components of feminist therapy.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3(3), 233-247.
- J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Toward a New Psychology of Trauma*. New York: FreePress.
- Kloess, J. A., Hamilton-Giachritsis, C. E., & Beech, A. R. (2019). Offense processes of online sexual grooming and abuse of children via internet communication platforms. *Sexual Abuse*, 31(1), 73-96.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Mckinlay, T., & Lavis, T. (2020). Why did she send it in the first place? Victim blame in

- the context of 'revenge porn'.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27(3), 386-396.
- Montell, F. (1999). Focus group interviews: A new feminist method. *NWSA journal*, 11(1), 44-71.
- Morgan, D. L. (1996). Focus grou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9-152.
- Morgan, D. L. & Krueger, R. A. (1993). *When to use focus groups and why*. SAGE Publications, Inc.
- Rabiee, F. (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63(4), 655-660.
- Randall, M. (2010). Sexual assault law, credibility, and "ideal victims": Consent, resistance, and victim blaming. *Canadian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22(2), 397-433.
- Reed, E., Salazar, M., Behar, A. I., Agah, N., Silverman, J. G., Minnis, A. M., Rusch, M. L., & Raj, A. (2019). Cyber sexual harassment: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substance use, poor mental health, and STI history among sexually active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dolescence*, 75, 53-62.
- Ruvalcaba, Y., & Eaton, A. A. (2020). Nonconsensual pornography among US adults: a sexual scripts framework on victimization, perpetration, and health correlates for women and men. *Psychology of Violence*, 10(1), 68-78.
- Sanjari, M., Bahramnezhad, F., Fomani, F. K., Shoghi, M., & Cheraghi, M. A. (2014). Ethical challenges of researchers in qualitative studies: The necessity to develop a specific guideline. *Journal of Medical Ethics and History of Medicine*, 7-14.
- Swanson, C., & Szymanski, D. M. (2020). From pain to power: An exploration of activism, the #Metoo movement, and healing from sexual assault trauma.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6), 653-668.
- Thomas L, MacMillan J, McColl E, Hale C & Bond S. (1995) Comparison of focus group and individual interview methodology in examin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Social Sciences in Health* 1, 206 - 219.
- Ullman, S. E., & Peter-Hagene, L. (2014). Social reactions to sexual assault disclosure, coping, perceived control, and PTSD symptoms in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4), 495-508.
- Wilkinson, S. (1999). Focus groups: A feminist method.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 221-244.

원 고 접 수 일 : 2022. 04. 26  
수정원고접수일 : 2022. 12. 15  
게재결정일 : 2023. 02. 21

## Guidelines and Directions for Supporting Digital Sexual Violence Survivors: Focus Group Interviews from Advocates

Giin Jung<sup>1)</sup> Suhyun Joy<sup>2)</sup> Hye Jo Kook<sup>3)</sup> Doyoun An<sup>4)</sup> Hyunjung Choi<sup>5)</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Master's graduate

<sup>2)</sup>Trauma Healing Center Social Cooperative Human Hearts / Secretary general

<sup>3)</sup>The Research Center for Somatic Psychology / Director

<sup>4)</sup>Division of Psychology & Child Care, Hanshin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up>5)</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ual violence (DSV), examine supportive strategies in the field, and develop future direction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nine human-rights advocates. A thematic analysis revealed 113 sub-themes, 19 themes, and four categories. DSV was understood as ‘an ongoing crime of being displayed and unrecognized due to socio-cultural construct’ and ‘trauma of being exposed, depriving of daily lives and relationships, and murdering souls.’ Strategies included ‘connecting, problem-solving, and balancing daily life united with feminism until social change,’ and future directions included ‘systematic collaborative support and social-recognition from concealment to testimony and resistance.’ Building social norms and institutional recognition, resisting victim-blaming and social-stigma based on feminism, issues for teenager support, importance of collaborative multidisciplinary system, and goals for psychotherapy were discussed. Lastly, we suggested a feminist consciousness raising using the keywords ‘reveal’ and ‘connect’ to combat DSV crime.

*Key words* : digital sexual violence, survivor support, feminism, focus group, thematic analysis

부 록

표 1.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발생하고 재유포와 물이해로 반복되는 현재진행형 범죄임(범주 1)

상위주제	하위주제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여 사회규범을 적용받지 못하고 신고, 수사, 재판, 처벌에 장벽이 높은 범죄	일상 사진 도용하여 성적 낙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성범죄 인식이 여전히 미흡함.
	촬영물 범죄뿐 아니라 정보 사칭 도용, 언어적 모욕과 명예훼손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있음.
	성적으로 인격권을 침해받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 자체가 성범죄이나, 처벌이나 제도적 구제에 장벽이 있고 박탈, 분노, 좌절이 계속됨.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기존 성폭력 개념 체계에 따라 적용받지 않고 온라인 공간은 제도화된 사회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간임.
	국내 및 일부 해외 국가는 삭제 협조가 잘 안되고 강제 집행이 불가함.
	검정이 디지털 피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고하거나 설득하기 어려움. 법원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가해자가 아닌 법원과 싸우는 것 같다고 느낌. 법적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취급받는 뉘앙스를 느끼고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됨.
재유포로 인해 알려질수록 피해입는 현재진행형 범죄	피해 촬영물 원본 폐기의 법적 정의가 없고 완벽한 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유포 불안 자체가 피해임.
	한번 유포되면 건잡을 수 없이 퍼져 유포와 재유포로 하룻밤 사이에 몇 천명이 접속하는 실태로 일차 피해가 계속되는 진행형 피해임.
	삭제를 도와주겠다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접근해 와서 피해가 확대됨.
성적 낙인과 사회적 소외를 악용하는 사회문화적 범죄	사회적, 제도적 낙인과 처벌로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없는 상태를 악용함.
	청소년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는 매체로 SNS 안에서 착취가 일어남.
	청소년은 피해를 입을수록 친구들이 배타하여 다시 그루밍에 익숙해짐.
	소외에 대한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착취를 머리로는 알지만 차단하기 어려움.
소통의 즐거움에 빠질 때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잘 안 떠오름. 성적 호기심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에 의지하게 됨.	

표 2. 디지털 성폭력은 보여주는 끝없는 공포로 삶과 관계를 박탈당하는 영혼 살해의 트라우마임(범주 2)

상위주제	하위주제
끝없는 유포에 대한 절망과 일상이 무너짐.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호소임.
	삭제 속도보다 더 빨리 퍼지고 완전한 삭제가 안 된다는 괴로운 현실과 영상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
	메일 퍼지는 피해에 비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긴급 지원이 안 되는 경우 느끼는 피해자로서 절망함.
	유포 아이디 처벌이 어려워 소용없다고 무력함을 느낌.
	사이트 검색에 몰두하는 등 피해자가 '셀프 채증'을 반복하게 되고 현재진행형 피해로 일상이 무너짐.
보여지는 트라우마를 경험함.	사건이 알려질수록 피해와 박탈이 커져 피해자는 사건이 애기가 안 되길 바람.
	주변 사람들이 영상을 보거나 일상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불안과 공포.
	다른 유형의 피해자에 비해 얼굴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며 외출 자체가 어려워 전화상담으로 돌리거나 지원 기관의 연락을 거부함.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음.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피해자가 원치 않아 하여 정책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어려움.
	아는 사람의 유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함.
	청소년기에 형성할 사회적 신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막막함.
자책감과 낙인, 고립 상태에서 피해가 반복됨.	아동기 그루밍 피해는 이후 피해에 취약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음.
	자책감이 끈질기고 강력하게 남음.
	유포되면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찍히는 두려움.
	심각한 성적 내용이나 본인이 자료를 제작한 영상 피해자 경우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단절이 더 크고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지지받는 기반이 없음.
	가족에게 영원히 알리고 싶지 않음.
	사회가 냉대하면 교묘한 그루밍에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음.
	청소년은 부모님이 실망할까 두려워 알리지 못하고 피해가 오래감.
	청소년은 범죄임을 인식하지만, 성적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거나 자책감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됨.
청소년 피해의 경우 오로지 부모가 나서거나, 반대로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청소년 혼자 도움을 요청함.	
원래의 삶, 정체성, 관계를 상실하고 박탈당함.	피해자의 죄책감을 깨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루밍 인정을 받기 어려움.
	그루밍 피해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의 갈등, 가해자를 연민하고 의존하는 문제가 걸림돌임.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신상 특정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
	피해자들은 오직 확산은 막기 위해 연결을 끊거나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방향으로 대처하며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 관계망으로부터 사라지게 됨.
	꼭 차 있는 울분으로 한국을 떠나고 싶음.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야 하는 상실감.	
악랄한 범죄에 자살 위기로 감.	

표 3. 페미니즘 관점을 바탕으로 연대하여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과의 균형을 돌보며 결국 사회 변화를 지향해 나감(범주 3)

상위주제	하위주제
정보 제공과 제도적 지원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연결을 유지함.	여성 활동가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원 정보에 대해 잘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임.
	경찰이 증거를 먼저 채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본을 확보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하나 잘 몰라서 안타까움.
	구체적인 공공 삭제 지원 기관 안내가 필요하며 방법을 알면 안심에 도움이 됨.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법적 정보가 필요함.
	디지털 환경의 위험성을 교육해야 함.
	디지털 장의사에게서 피해를 더 크게 입는 등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 정보를 획득하는 법을 알려야 함.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로 설명하면 도움이 됨.
	전문 디지털 성폭력 지원 기관과의 연결이 중요하고 연결을 피하던 피해자도 지원 절차와 과정을 공유할 때 연결을 중요하게 여김.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개명을 통해서도 하나의 답을 넘는 힘을 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안내하고 여러 지원을 시도하여 원동력을 얻어야 함.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설정하고 해내는 경험의 중요성.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처와 없는 대처를 구분함.	
일상 삶을 회복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함.	일상을 챙기는 지원이 필요함.
	피해가 지속된다는 특정에 맞춰 살아갈 역량을 만드는 지원이 필요함.
	일상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긴급한 심리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함.
	장기 싸움임을 알고 본인을 돌보면서 일상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둬.
관계적 지지와 연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함.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드러날 수 없어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제공받지 못함.
	유죄판결보다 안전망을 더 원하는 것 같음.
	현재 주변 관계망 자원이 고통에 영향을 미침.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의 이야기는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며 만남이 필요함.
	연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리는 게 필요함.
	피해자가 동맹 속에서 싸워낸 후 자긍심을 자원으로 느꼈음.
낙인과 피해자 비난의 공포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페미니즘 관점으로 소통하며 함께 버딤.	피해자를 향한 구조적 낙인, 혐오, 차별의 양상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자기 비난과 혐오를 다룰 수 있어야 함.
	상담자가 낙인이나 편견으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 때 피해자는 상담을 그만둬.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해자 잘못이 아니며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도움.
	성적 호기심에 대해 안전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경험 필요함.
	상담가 대 피해자가 아니라 동지로서 감정을 공유함.
	상담자는 사회의 지지하는 시선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
	피해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하고 담담하게 버티어 줌.
젠더 기반 폭력으로 이해하는 페미니즘 관점이 필요하며 그러할 때 진심은 통함.	
사회적 인정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알림.	많은 사람이 여러 활동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
	피해를 귀담아듣는 기관과 사람들이 호소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는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며 최선으로 움직이는 지원자가 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힘이 되었음.
	제도 부재에 대해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림.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지지적 관계 구축을 도움.	보호자와 건강한 관계를 도와 가해자에 대한 의존을 낮추도록 지원함.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게 되기까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보호자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면 좋음.
	보호자도 불안을 지지받아야 피해자를 문제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음.
	보호자도 상담이 필요하며 보호자로서 자책감을 살피주어야 함.

표 4. 지원자 협력 체계 구축과 생존자 지지의 사회적 토대를 바탕으로 은폐가 아닌 증언과 저항의 삶을 지향함(범주 4)

상위주제	하위주제
체계적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접점을 갖춘 세팅이 필요함.
	본인을 드러내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필요함.
	현장 활동가가 쓸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이 필요함.
	디지털 성폭력 피해 특화의 피해자 모인이나 교육,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피해자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아 어렵지만, 일상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필요함.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구조화된 정기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함.
	사건 지원 과정이나 안전한 자조모임 진행을 위해 심리상담가와 협업이 필요함.
등대처럼 가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긴급 대응과 온라인 및 방문 지원이 필요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할 때 심리지원이 필요해 보이고 심리상담이 병행되어야 법률 지원의 부정적 영향을 덜 수 있음.
	사살 호소를 포함하여 사건으로 인해 촉발되는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함.
	유포 불안의 긴급성을 이해하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고 삭제 신청부터 시작까지 시간 단축이 중요함. 경제적 여력, 이동 능력 등이 없는 경우 방문 상담을 통해 제도와 절차를 안내해야 함.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지원자가 실제함을 느끼도록 도움.
전문 지원자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온라인 공간에 지원의 등대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내야 함.
	이른 연령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책임감 있는 지원 인프라 필요함.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연구와 고민을 계속해야 하며 지원 기관 간 협업과 교류가 필요함. 지원자 역시 고립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필요함.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함.
은폐와 존재 훼손에 저항하는 생존자를 지지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갖추어야 함.	유포 및 재유포 삭제 지원의 한계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완전 삭제를 바랄 수 없는 피해 공존의 경험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할 것인지 키워드가 필요함. 협박은 비밀이 될 때 강력하지만 범죄가 될 때는 협박이 되지 못하는데, 피해자가 왜 협박에 좌절과 공포를 느껴야 하는지 새롭게 접근해야 함. 피해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를 구체화하고 작은 일부부터 시도함. 재유포의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을 공감하고 지지하며 불안을 언어화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치유임. 유포에 대한 극단적 공포에 대해 유포되었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음을 지지함. 유포된다고 해서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원자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함. 피해자는 사회적 인식이 바뀔을 느끼고 용기를 내었음.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임을 각인시키는 사회적 인식과 교육 필요함.
	무슨 일이 있어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향하며 피해자는 강해짐. 법정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증언한 피해자가 잘살 수 있겠다고 긍정적인 경험을 했음. 피해자의 발언 의지와 발언 기록은 중요함. 피해가 계속됨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만한 무언가가 필요함.